

최태원의 ‘AI’ 진격…“차별화 전략으로 승부”

〈SK 회장〉

SKT TF팀 만나 경쟁력 강화 토론
“토니로 불려달라” 수행 소통 강조
브레인 조직 미래기획팀 신설 구상
삼성·LG도 줄줄이 “AI 투자 확대”

대기업 총수들이 인공지능(AI)에 빠졌다. AI를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직접 챙기기에 나섰다. SK텔레콤 회장을 겸직하며 AI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1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수펙스홀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AI는 단지 SKT 미래 사업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SK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고 확신했다.

●아폴로TF, 정규조직으로 확대

최 회장은 이날 SK텔레콤의 AI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350여 명의 ‘아폴로’ 구성원들과 AI를 중심으로 한 회사 비전과 개선 과제 등에 대해 2시간에 걸쳐 자유롭게 토론했다. 아폴로는 지난해 5월 출범한 SK텔레콤의 AI 전략 태스크포스(TF)다.

이번 미팅은 TF가 추진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차세대 AI 서비스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사업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과 5명의 아폴로TF 구성원 대표가 진행한 패널토론과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SK텔레콤의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이 진행됐다. 최 회장은 특히 앞으로 더 수평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본인을 SK텔레콤 방식대로 영어이름인 ‘토니’로 불려줄 것을 요청하며 솔직한 소통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플랫폼 기업



최태원 SK 회장이 11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수펙스홀에서 SK텔레콤 인공지능(AI)관련 구성원들과 AI 사업을 중심으로 한 회사 비전, 개선 과제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 | SK텔레콤

들과 그들의 불대로 경쟁하긴 어려우니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의미있는 도전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아폴로는 SKT를 새로운 AI 회사로 트랜스포메이션(변환)하는 역할인 만큼 이를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기술 뿐 아니라 게임,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사내외 전문가를 활용해 중장기적인 AI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리할 브레인 조직인 미래기획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아폴로TF를 정규조직으로 확대해 인력과 리소스를 대폭 보강하고, SK텔레콤 뿐 아니라 SK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결합할 것을 약속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 자리는 SKT가 본격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하는 첫발을 떼는 의미있는 자리다”며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LG도 AI 투자 강화

최 회장의 이번 타운홀 미팅은 SK텔레콤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이후 경영현안 및 미래 전략에 대해 임직원들과 소통한 첫 행보로 주목받았다. 최 회장은 최근 AI 사업과 디지털 혁신에 힘을 보태기 위해 SK텔레콤의 무보수 미등기 회장직을 맡았다.

AI가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다른 그룹 총수들도 관련 투자에 나섰다. 삼성은 지난해 8월 향후 3년 동안 투자 규모를 240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AI와 로봇, 슈퍼컴퓨터 등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강화를 위한 투자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A

I 분야에서 대형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한국과 미국, 캐나다 등에 글로벌 AI 센터를 설립하고, 선행 기술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첫 해외 출장으로 선택한 곳도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AI센터였다.

구광모 LG 회장도 취임 이후 AI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관련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LG AI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초거대 AI ‘엑사원’을 공개했다. 최근엔 엑사원으로 구현한 첫 AI 휴먼 ‘틸다’를 소개했으며, 관련 생태계를 넓히기 위해 구글과 고려대의료원 등 국내의 12개 기업과 ‘엑스퍼트 AI 얼라이언스’도 발족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KT가 중고폰 브랜드 ‘민트폰’의 서비스를 개편했다. 번거로웠던 직원들이 민트폰 패키지와 온라인 사이트 메인 화면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 KT

“중고폰 쓰고 구매액 돌려받으세요” KT, ‘민트폰 바이백’ 환급률 상향

KT는 프리미엄 중고폰 브랜드 ‘민트폰’의 기기 반납 프로그램 ‘민트폰 바이백’의 환급률을 높이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민트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KT는 지난해 8월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와 제휴를 맺고 민트폰을 출시했다. 품질 검사 절차를 거친 중고폰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는 브랜드다. 민트폰 바이백은 중고폰을 구매하고 1년이 지난 후 단말기를 반납하면 구매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전액을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가입 고객이 S급 중고 ‘아이폰11 64GB’를 60만5000원에 구매한 뒤 1년 후에 파손 및 손상 없이 반납하면 부가세 5만5000원을 제외한 55만 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온라인에서 민트폰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민트폰 온라인 사이트에서 원하는 단말기와 요금제, 바이백 프로그램 등 옵션을 선택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KT는 이날 말까지 민트폰 리뉴얼 오픈을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민트폰 바이백 홍보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100명을 추첨해 도미노피자, 민트폰 상담을 신청한 선착순 300명에게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개통까지 완료한 고객 전원에게 신세계 5만 원 상품권을 준다.

김명근 기자

LGU+, 서강대와 메타버스 유니버시티 조성

LG유플러스는 서강대와 ‘메타버스 유니버시티’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메타버스 유니버시티는 대학 학사시스템과 연동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일회성 이벤트도 그치지 않고 서강대가 전 세계 예수회 산하 대학과 교육 협력을 추진하는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LG유플러스는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과 메타버스 가상오피스, 화상강의 등 서비스를 대학강의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량하고, 교육 효과를 실증할 예정이다. 서강대는 메타버스전문대학원 내 메타버스 기술 R&D랩을 설치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메타버스가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교육에서도 실증 사례가 나온다면 메타버스가 한 단계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GOS 논란 ‘갤S22’ 업데이트…이용자에 기능 선택권 부여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삼성전자, 초기 성능 제한 해제
관리 모드 추가, 우회 앱도 허용

삼성전자가 ‘갤럭시S22’의 성능 저하 논란을 낳은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기능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S22 시리즈에 GOS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단행했다.

먼저, 게임 앱을 실행할 때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초기

성능 제한을 해제했다. 다만 단말 온도에 따른 기본 발열 제어 동작은 유지했다. 또 게임 부스터 설정의 실험실 메뉴 안에 ‘게임 퍼포먼스 관리 모드’를 새롭게 추가했다. GOS 기능을 우회할 수 있는 앱도 소비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졌다. 이 외에도 카메라 동작 관련 안정화 코드, 단말 동작 관련 안정화 코드, 단말 보안 관련 안정화 코드 등을 적용했다.

GOS는 게임을 실행했을 때 과도한 발열을 막기 위해 GPU 성능 등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이전 갤럭시 스마트

폰에도 있었지만, 갤럭시S22 시리즈에선 ‘원 UI 4.0’ 업데이트를 하면서 앱을 통해 우회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소비자들은 강제적 성능 저하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와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까지 접수됐다.

삼성전자는 “고객 여러분의 마음을 처음부터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존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개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 삼성전자는 성능 저하 논란을 낳은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기능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다.

한편,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도 직원들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GOS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의견을 경청하지 못했다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근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14일 (월) 음력: 2월 12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는 게 좋다.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소피의 조언이 필요하다.	현실에서 모든 것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뒤엎졌던 일들이 서서히 풀려나며 금전문제도 해결되며 경솔한 판단보다 겸허한 마음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명예가 따르고 금전적인 여건도 아울러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과 확고한 자기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친구들과 과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시도하라. 오늘은 황재수가 있다.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서 및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취업이 되겠으니 노력하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쉽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욕심으로 인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날이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는 데서 감동이 기인되며 모험이나 질투로 인하여 고립되는 상태에 놓인다. 자신의 반성과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신의 능력이 표출되는 날이다.	냉정 상태를 심각하게 물고 가면 원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과정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서두르면 낭패 본다. 기다려라.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매사 법을 지켜야 한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학업을 통해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업,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직업상의 변동과 문서와 연관된 일에서 이득을 찾으려 하는 때이므로 일관된 목표의식을 갖되 주위를 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크게 이득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현상유지만 도모할 뿐이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어라.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81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